

# “문화재야행 상설화 방안모색을”

### 정현을 익산시장, 문화재야행 성황 직원노고 격려... “전국소년체전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을”

정현을 익산시장이 15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2019 익산문화재 야행'을 익산시 야간명소로 상설화하여 익산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 시장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준 덕분에 지난 주말 왕궁리 유적 일원에서 열린 익산 문화재야행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며 직원들

의 노고를 격려하고 관련부서에 충분한 포상을 지시했다. 이어 “역사자원은 풍부한 반면 야간 명소가 부족한 우리 시에 문화재 야행은 좋은 관광아이템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해를 더하며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문화재야행을 주말이벤트 등을 활용한 야간 명소로

상설화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서동축제도 문화재단의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며 “전 직원이 열정을 가지고 발 벗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오는 5월 열리는 2019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도 지난해 성공적으로 치른 전국체전에 준해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정현을 시장은 “최근 시청사 장소 이전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신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을 분명히 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에 의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중기 맞춤형 컨설팅 참여기업 발굴

###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5월 8일까지 40개사 이상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에서는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산시에 소재한 기업의 경영여파상황을 해결하고자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문컨설턴트를 모집한 결과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총 13명의 전문컨설턴트를 선정했다.

선정된 13명의 컨설턴트는 경영, 노무, 기술개발, 사업화 등 분야별 전문 자격과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이며 지난 11일에는 캠프종합기술원에서 개최한 '컨설턴트 설명회'

에 참석해 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컨설팅 방법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시는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할 기업을 40개사 이상 발굴해 희망하는 컨설팅 분야 및 목적에 대해 조사하고 기업에 맞는 컨설팅 위원을 배정하여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방문을 통한 협력업체 현황 파악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 컨설팅, 사업다각화를 위한 기술개발 컨설팅, 중소기업 경영노무



군산고용위기센터는 '고용위기지역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기업체에서는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450-1324)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공무원노조, 고발 건 “강력 대응하겠다” 예고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모 단체 단장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시 공무원 7명을 경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15일 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공무원 7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사법기관에서 수사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불법 집단인

양 SNS(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내용을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 측은 고발인이 주장하는 사무처장등 노동조합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들의 경우 출장, 연가, 병가 등 근무 상황 관리와 소속기관 내에 부여된 업무분장 상의 해당업무, 업무 분장 외의 직원들의 고충처리 상담, 후속복지에 관한 사항 등 공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군산시의 공무원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8조(조합활동의보장) 및 제11조(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등 제2차 조합활동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수행하고 있어, 군산시의 노동조합간의 협약에 따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활동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전임자로서 무급 휴직하고 시장의 지휘 통제 없이 자유로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운 위원장은 “이번 공무원 경찰 고발 건은 노조 활동을 부정하고 위축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사법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성토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정기점검 실시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올해 1월 수립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 점검계획을 토대로 정기점검 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환

경오염행위에 대해 적발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으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부적정 처리행위 여부 ▲운영기술인 선임 및 교육 여부 ▲운영일지 기록 및 보존 여부 ▲자가측정 실시 여부(대기) ▲인허가 사항 일치 여부 등이다. 이를 위한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가 병행 된다. 특히 석제품 제조시설 등 폐수를 위탁 및 전량 재이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무단방류와 폐수위탁처리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용융·상형시설, 도장시설, 세탁시설, 욕기공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시 녹색환경과장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위반행위 적발 시 사법처리와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근절 시키겠다”며 “사업장은 환경배출시설 관리에 소홀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 원광대병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선정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이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선정 심사 결과, 전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센터는 1단계(2019-2021년)로 국비·지방비 총 13.38억원을 지원받아 전라북도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확대·지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모를 통해 3개 광역시·도(전북, 서울, 강원)의 의료기관이 선정되었다.

전북은 장애인 인구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매우 높지만, 장애인 의료접근성이 낮고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체계가 미비하여 장애인 건강권이 취약한 지역이므로 센터 유치의 필요성이 시급한 지역이었다.

윤권하 병원장은 “그동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외상센터, 닥

터헬기, 금연지원센터, 서부해바라기센터 등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의 최일선 현장을 지키고 있다.

원광대학교병원이 우리 지역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원광대학교병원은 곧바로 공간 리모델링과 전문인력 채용을 진행하여 올해 7월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주민철 교수(재활의학과)를 센터장으로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예방의학과 등의 전문의료인과 전담 직원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 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한다. 장애인 관련 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익산시 가공식품 아이디어 콘테스트 개최

익산시(시장 정현을)가 제2회 '익산시 대표 가공식품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5월 3일 서동공원 축제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콘테스트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식품산업 유통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콘테스트 분야는 즉석가공식품을 제외한 '일반가공식품'과 '발효식품' 2가지로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에 관심이 있다.

모든 시민과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콘테스트는 1차 시민평가단, 2차 전문가평가단의 심사로 진행되며 각 분

아별로 금·은·동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아이디어 접수기간은 이번 달 22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이며 시 농식품유통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아이디어 콘테스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익산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농식품유통과(063-859-3795)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인천 기자

## 군산시, 주요 급수구역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추진

군산시가 대야면과 오식도동 일원 급수구역 상수도 유수를 향상 위해 상수도 누수탐사용역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3억원의 예산으로 대야면 급수구역 8개 블록 및 오식도동 급수구역 6개 블록의 계량기 및 상관식 누수탐사를 한다.

제수면 청음조사와 우수맨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유수율이 정수장생산 수돗물

중 가정에 전달돼 수도요금에 될 수돗물의 양의 비율인만큼 유수율이 높을수록 시 재정 부담이 줄어 들 수 있다. 수도요금 인상요인을 줄일 수 있어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종신 수도과장은 “유수율 개선노력과 현대화사업추진으로 시민에게 최고품질의 수돗물 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